



관음보살과 아미타불이 코끼리와 함께 우리학교를 떠받치고 있다. 서광이 비치고 있는 가운데 하늘의 천선녀가 주악을 연주하고, 건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색구름과 무지개를 피운다. 미래로, 세계로 발전해 나아가려는 동국정신의 성스러운 뜻을 담고 있다.

그림 = 송영방(예술대 명예교수)

씨앗 뿌리고 나무 심어 어언 백년

- 건학 100주년에 부쳐 -

신 경 림

이 척박한 불모의 땅 한 모퉁이에
씨를 뿌리고 묘목을 심어 어언 백년
그 씨앗 자라 열매를 맺어
손 고을을 풍요로 만들고
그 묘목 우람한 나무로 자라
질푸른 향기로 천지를 매웠다

척박한 불모의 땅은 기름진
낙도가 되고
우람한 나무들 곳곳 기성
아름다운 청신 마침내
이 땅의 강이 되고 길이 되었으니

이제 이 나무들은 이 땅의 꿈이다
이 땅을 살게 하는 뜨거운 숨결이다
살아서 내달리게 하는 노래다
썩은 것들 버려진 것들조차
싱싱하게 되살아나게 하는
눈부시게 밝은 빛이다

더 크고 단 열매를 맺으면서
더 큰 나무로 자라
더 넓게 더 높게 세상을 덮으면서
물과 불과 바람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밧줄이 되면서
씨앗 뿌리고 나무 심어 어언 백년

빛이 되어서 불이 되어서
물이 되어서 바람이 되어서

이사장 신년사



화합의 시대정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때



경애하는 동국 가족 여러분!

불기 2550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침략에 대응하고 민족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명진학교가 설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의 첫날입니다.

우리 선배들께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해석함으로써 중생들에게 접근하여 훌륭한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서, 당시 정치 권력으로부터 핍박과 멸시를 받아 사찰 재정이 심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국 17개 사찰에서 기금을 모아 명진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교직원 일천명 재학생 이만명 병원 6개소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대학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일제 강점의 시기에 민족 정신의 함양과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고, 그 때문에 총 두 번에 걸쳐 강제 폐교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그 어느 나라 어느 대학에서도 찾아 보기 힘든 탄압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선배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고고한 학풍을 읊골게 지켜왔습니다.

탄압에 굴하지 않고 지켜온 학풍

그러므로 우리 동국대학이 한 세기라는 저지 않은 세월을 올바르게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안으로는 불교계의 근대화에 노력하고 밖으로는 민족의 자주 정신을 선양하는 데 앞장섰던 여러 선배 선각자 불교인들의 희생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희생과 불퇴전의 전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재 위치는 당연히 도달해야 할 위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심히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격동의 민족사를 선도했듯, 우리 후인들도 무한 경쟁 시대의 학문 세계를 주도해야 하지만, 작금의 평가가 그에 부합하지 못함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시지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이런 난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화합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불가에선 선도 생각하지 말고(不思善) 악도 생각하지 말라(不思惡)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악에 초연한 채 현실을 방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만의 선과 악을 생각하여 강요하기에 앞서, 그 주장의 근거가 자신만의 아집이나 집단의 독선은 아닌지 되짚어 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들로 나뉘어 어느 한 편의 입장을 강변하지 않으므로, 토론과 의견의 개진은 자유롭고 그런 주장들이 다양성 속에서 창조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불이(不二)적 중도의 화쟁이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불이적 중도로 화쟁과 화합을 일구어가는 것, 그리하여 혼돈 속에서도 여법(如法)한 질서와 이치를 찾아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처님 이래의 불교적 시대정신일 것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화합할 때 우리들은 역사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역사의 계승과 역사의 창조는 동시적인 것입니다.

사업(私業)과 공업(公業)으로 이루어지는 이 역동적인 시공간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전승과 미래로의 전진이 함께 어우러진 조화로운 시대상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치우침 없는 균형된 시각 필요

따라서 우리는 불교를 비롯한 인류 정신

문화의 위대한 유산들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그것이 바람직한 생명 세계의 건설이라는 진취적 방향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개인적 아집의 울타리를 넘어 인류와 생명 세계라는 전체를 향해 관심과 배려의 범위를 확산시켜 나아가는, 거시적이면서도 균형잡힌 시각을 도출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반야(般若)의 묘용(妙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향하는 대학은 학문 따로 생활 따로의 직업적 지식 전문가를 양산하는 세칭 일류대가 아니라, 지적 깊이와 인격적 넓이를 아울러 갖춘 존경받는 지도자를 키워내는 사표(師表)로서의 대학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대학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사명과 아울러, 그렇게 능히 해낼 수 있다는 희망과 능력도 또한 갖추어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잡야합경(雜阿含經)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음은 모든 흐름을 건너게 하고, 게으르지 않음은 넓은 바다를 건너주며, 정진으로 모든 고통을 버리고, 지혜로써 맑고 깨끗하게 되느니라.”

이를 우리의 현실에 맞게 옮겨 보면, 우리에게 희망과 능력이 있음을 믿고, 화합과 지혜로써 정진해 나아가면 저 영원해 보이는 듯한 이상과 사명도 능히 성취될 수 있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삼동(三冬)의 추위가 뼈에 사무치게 느껴지지 않으면, 어찌 봄의 대화향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지난 겨울이 추웠기 때문에 봄이 반가운 것이고, 추위가 있기에 꽃향기가 좋은 것을 압니다.

우리의 현재가 고달프고 시련이 크기 때문에, 단비처럼 내린 부처님의 가르침을 참으로 반길 수 있는 것이고, 미래의 희망이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일관되게 유지해 온 도덕적 정당성

다시 한번 돌이켜 보건대 우리 동국대학교만큼 순수 민족 자본과 사상에 의해 설립되어, 그 도덕적 정당성을 일관되게 유지해 온 대학도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선배인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 끝까지 홀로 변질하지 않으신 것은 비단 동국대학교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긍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지닌 도덕적 정당성이야말로 이 혼탁한 시대에 사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비록 다소 정제된 듯이 보인 시절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학문 깊숙이 내재된 부처님의 지혜야말로 미래 인류 사회를 이끌어갈 밝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음 백년 기간 내에 동국대학교가 세계 초일류 대학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곳에서 민족의 희망과 나아가 인류의 구원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마음의 깨끗함이 곧 세상의 깨끗함이고, 스스로 깨끗함이 곧 모든 것의 깨끗함이다”(心淨即 國土淨 自淨即一切淨)는 불교의 근본 수행관에 입각하여 이 땅을 불국 정토화함으로써 우리의 세상을 화쟁과 안락의 국토로 만들어갈 때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정진과 선연(善緣)의 축적으로, 미래의 단순한 예측을 넘어 미래를 새롭게 창조해 나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화합하여 열정과 용기를 가지고 이상을 드높여 건학 100주년의 새 아침을 맞이합시다.

끝으로 동국 가족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성적인 봉사에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앞날에 불보살님들의 무한 가피가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김 현 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총장 신년사



동국사랑 한마음으로 여는 100주년 새아침



사랑하는 동국인 여러분!

2006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여러분 가정마다 부처님의 자애로운 미소와 손길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건학 100년의 새아침입니다. 마침내 우리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아침이 온 것입니다. 동국의 대선배인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는 지금부터 80년 전인 1926년에 시집 <님의 침묵>을 발표하셨고, 그 속에 ‘오서요’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서요, 당신은 오실 때가 되었어요, 어서 오서요,
당신은 당신의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당신의 오실 때는 나의 기다리는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건학 100주년은 우리 동국인 모두에게 ‘당신’이며 ‘님’입니다. 오래도록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님은 오시며, 님 오실 줄 알아야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님과 우리는 둘인 것 같으면서도 하나입니다.

100년 역사와 전통 앞에 겸허히 머리 숙여...

100년의 역사와 전통, 100년의 새로운 미래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하나입니다. 가슴 벅차고 자랑스럽습니다. 기다리는 님 만나듯, 오시는 님 모시듯, 우리 모두 건학 100년의 새로운 아침을 동국사랑 한마음으로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동국인 여러분!

우리학교는 지금부터 100년 전 불교계의 선각자들께서 힘을 모아 세운 민족의 사학입니다.

일제 강점기간 동안 두 번의 폐교 사태를 맞았으면서도 학통을 굳건하게 이어왔으며, 이 땅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 뜨거운 피를 흘리며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진리 탐구를 위해서는 웅쟁정진했으며, 도전을 기다리는 세상의 그 어느 곳이라도 우리는 굳센 기상을 떨치며 함께 전진해왔습니다.

그 역사와 전통 앞에 오늘 아침 겸허히 머리 숙입니다. 오늘을 우리들 있게 한 수많은 인연들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국의 동문들이 한국인의 문화를 풍부하게 발전시킨 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아침은, 이러한 겸허와 감사와 자랑의 마음자리 위에서 미래 100년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꿈을 다짐하고 준비합니다.

건학 100년의 새아침은 그래서 소중합니다. 향기로운 수목빛 과거와 찬연히 빛나는 미래가 오늘 아침 우리 모두의 가슴에서 뜨겁게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뜨거운 만남을 새로운 비전의 이름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깨달음에 정진하며 변화의 리더십을 창조하는 대학

동국대학교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여기에 어울리는 우리대학의 교육목표는 우리만의 색깔 있는 인재를 기르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상상하는 창조적인 동국인 Creative Thinker.

철고, 도전하는 동국인 Young Challenger.
도덕성, 리더십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동국인 Ethical Leader.

즉, ‘도덕성과 국제적 소양을 갖춘 도전하는 리더’가 동국 인재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ABC + 알파, 특성화 전략

깨달음과 실천의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지역(Asia), 생명(Bio), 문화(Culture)의 꽃을 피웁니다. Asia는 불교학, 통합인문학, 사회과학이 지역학과 융합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학문 세계화 전략의 기반입니다.

Bio는 생명과학, 의학, 한의학과 BT, NT, 그리고 불교생태학을 결합하여 불교의 생명사상을

바탕으로 기술·공학을 융합하는 특성화전략입니다.

Culture는 불교문화, 영화영상, 문학, 예술, 건축·디자인을 IT와 결합하여 디지털콘텐츠의 산·학·연 중심기지를 특성화하는 기획입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경쟁력을 갖춘 경합행정학, 경영학, 법학, 정보통신 등 비교우위 학문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교육·연구 강화전략

교육 분야의 목표는 기초교육과 전공교육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혁신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의 질적 개선은 물론 학습량의 획기적 증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해에 설립한 교양교육원과 국제교육원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창의력·사고력·표현력을 키우고, 외국어 능력과 국제적 문화소통능력을 키우는 국제교육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기초교육과 실용적 공학교육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우리학교는 현재 국내 최초의 공학교육 인증대학으로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여 타 대학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화 된 트랙별 전공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연구 부문에서는 차세대 핵심연구인력 육성과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연구 클러스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학·석사, 석·박사 연계과정을 도입하여 우수한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할 것이며, 영상전문대학원을 세계 수준으로 육성하고 법학, 의학 전문대학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수인력 부문입니다. 2010년까지 교수인력 200명을 추가로 초빙할 것입니다. 그리고 석학급 교수의 전략적 특별초빙과 우수한 재직교원의 연구력과 자기 진작을 위해서 Fellowship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공간문제를 획기적으로 극복하게 될 교육여건 혁신전략의 경우를 이번 신년회에서 특집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국인 여러분!

이제 새로운 100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세계를 향해,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아가갑시다. 감사합니다.

홍기삼
동국대학교 총장

100년은 프리미엄이다!

100년간 키워온 무성한 학문의 숲을 나의 것으로!
100년간 맺어온 수많은 동문의 내력을 나의 것으로!
100년간 쌓아온 든든한 콘텐츠 위에서 출발하세요.

2006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www.dongguk.edu

대 학 원 명	모 집 과 정	원 서 접 수 기 간	전 형 일	홈 페이지 주소	문 의 처
대 학 원 (주 간)	석·박사 전공정, 전학과	2006. 1. 9(월)~1. 20(금)	2006. 2. 4(토)	http://graduate.dongguk.edu/gs/	(02)2260-3116
행정대학원(야간)	석사 학위과정, 최고관리자과정	2006. 2. 3(금)까지	수시 면접	http://graduate.dongguk.edu/pa	(02)2260-3101~3
경영대학원(야간)	최고경영자과정	2006. 2. 17(금)까지	수시 면접	http://graduate.dongguk.edu/ba	(02)2260-3106,7
언론정보대학원(야간)	신입생, 편입생, 최고관리자과정	2006. 1. 27(금)까지	수시 면접	http://graduate.dongguk.edu/ci/	(02)2260-3723, 3733
산업대학원(야간)	신입생, 편입생, 최고산업경영자과정	2006. 1. 31(화)까지	수시 면접	http://gsite.dongguk.ac.kr	(02)2260-3861, 3602~3

100년을 빛낼 풍성한 행사들

100주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동국에는 건학 100주년을 기념하는 풍성한 행사들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신문에서는 학교와 학생회 등에서 준비하고 있는 100주년 기념사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편집자

1월 ▲홍보 CF·영화 제작
동국의 역사와 힘을 담은 홍보 CF와 홍보 영화를 제작한다.

3월 ▲동국 해외 봉사 및 인턴십
동국인의 진취적인 도전정신과 봉사정신을 실제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될 계획이다.

▲건축정신과 불교교육의 근대화 학술 세미나 개최
선각자들의 건축정신을 재조명하고 20세기 초기 불교교육과 학제에 관해 다룬다.

대·영역별로 백년 동국의 지적 소산을 정리한 목록과 서적을 전시하게 된다.
▲24일, 박물관 소장 유물 특별전
5월 30일까지 우리학교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보급 유물들을 전시한다.

5월 ▲박영석 동문 기념 동판부조설치
산악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박영석 동문의 도전정신을 기리기 위한 동판부조를 중앙도서관 앞 기둥에 설치한다.

2월 ▲서울캠퍼스 정문 상징조형물 설치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학교이미지를 표현하는 조형물을 설치한다.

4월 ▲100주년 기념 수계 대법회
정각원이 주재하며 현대적 실전 강령 3계 또는 5계를 선포하는 법회가 열린다.

▲24일, 동국 백년전(전시회)
5월 19일까지 동국대 100년간의 교사자료 및 사진을 전시할 '동국 백년전'이 중앙도서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건축관련자료 △민중화 및 순국선열 자료 △문헌자료 △기념품 △복식자료 △사진자료 △동문 및 교직원 기념자료 △집기 및 비품 자료 등 시

▲26일, 시화전
5월 9일까지 인사동 공평 아트센터에서 우리학교를 대표하는 역대 시인의 시와 미술을 하나로 모아 전시한다. 이를 통해 동국 100주년의 문화와 미술 분야의 성취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남한 건학기여 사찰 기념비 설치
△송광사 △금산사 △용주사 △마곡사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동화사 △월정사 △봉선사 △봉은사 등 11개 사찰에 기념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5월 ▲Turning The Page 설치
중앙도서관 로비에 국내 최초로 터치스크린, 텍스트, 그래픽, 음성 등의 방식을 이용해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독서할 수 있는 최첨단 장치를 설치한다. 40인치 LCD 모니터가 컴퓨터에 연결되며, viture book(가상 책)에 반야심경과 우리학교 출신 시인들의 시 100편이 담겼다.
이를 통해 IT 분야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정보 기술을 홍보할 것이다.
▲대동제
건학 100주년을 맞아 지난해보다 더욱 풍성한 프

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다.
▲동대백년사 편찬간행
동국대 100년간의 역사를 정리한 책으로, △1권=역사 △2권=학술문화사 △3권=사진집 △4권=자료집으로 이뤄져 있다.
▲퇴행성 질환에 대한 국제학술포지엄
세계적 권위의 석학과 함께 최근 연구동향과 치료에 대한 학술발표를 한다.
▲난치질환에 대한 동서 의학적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국제학술포지엄
동서의학 연구 및 임상결과에 대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박물관 도록 발간
우리학교 박물관 소장 보물과 유물사진을 모아 도록을 발간한다.
▲1일, 전통등 전시회
다양한 전통등과 학교를 상징하는 대형등을 30일 까지 전시한다.

▲2일, DMZ 생태 평화 국제 학술 대회
3일간 △세계사와 DMZ-21세기를 향하여 △DMZ 자연·인간·문화 △DMZ '세계유산' 지정과 생태 평화특구 건설 △DMZ와 한반도 평화체제 △DMZ 한반도 분단에서 동북아 생태평화로 등 총 5개 주제에 대해 국내·외 학자들이 발표한다.
건학 100주년 기념 학술연구 성과를 집약하고 동북아중심 한반도 평화문제를 집중 부각하며 남북한 공존·공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5일, 100주년 기념 열린 음악회
동국 100주년을 축하하는 음악 축제가 열린다.

▲8일, 기념우표 발행
우리학교 건학 100주년 기념우표가 대한민국 정부 우정사업본부에서 공식 발행된다.
5월 8일부터 전국의 우체국에서 동시 보급될 예정이다. 우리학교에서는 우표 수집점을 발간할 계획이다.
▲8일, 건학 100주년 기념식
개교기념일인 이 날 건학 100주년 기념행사가 열린다. 동국 10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동국 100주년의 시작을 선언하게 된다.

5월 ▲8일, 타임캡슐 봉안
동국 100주년 역사와 발자취가 담겨진 각종 자료들이 담긴 타임캡슐이 팔정도에 봉안된다.
▲25일, 지식기반사회와 불교생태학 국제학술대회
국내·외 학자들이 △지식기반 사회와 환경문제 △불교생태학과 서구사상 △지식기반 사회의 미래 △불교생태학의 학제적 접근 △미래사회의 평화와 불교생태학 등 총 5개 주제에 대해 발표하는 학술대회가 중강당 및 90주년 기념 문화관에서 27일까지 개최된다.

6월 ▲월드컵 관련 행사
우리나라 대표팀의 경기가 열리는 날 만해 광장에서 관련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9월 ▲30일, 우리말 불교 개념 사전
불교의 대표적 개념이 125여개에 대한 학술적 정의가 담긴 전 11권으로 구성된 사전이 발간된다.

10월 ▲목욕 가요제 및 백상 예술 제전
▲대학 가요제 유치
12월 ▲10일, 북한 사찰 방문
△보현사 △신광사 등 건축에 기여한 북쪽 소재 사찰을 방문해 당시의 건축정신을 되새기고 새로운 동국 100년의 의지를 다진다.

2007년
▲경주 민자기숙사 건립
외국 교수와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건립한다.
▲2월, 불교 생태학 총서
불교생태학 연구 성과 집대성 및 관련 외국 저자를 번역한 각 500쪽, 전 12권의 불교생태학총서가 발간된다.
▲8월, 경주캠퍼스 100주년 기념 본관 건립
서울캠퍼스와 동질성을 느낄 수 있는 형태로 석조 본관을 건립하게 된다.

날짜 미정
▲미래 캠퍼스 모형 전시
캠퍼스 마스터플랜을 통해 제시된 미래의 서울캠퍼스 모형을 전시한다.
▲동국 파워엘리트 양성 프로젝트
우리학교 학부출신 졸업생이 미국 Ivy League 대학 또는 유럽과 아시아의 일류대학에 석·박사 과정으로 진학할 경우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넓은 시각 담아내 다양한 독자들과 소통할 것



나를 성장시키는 진실된 세상과의 만남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평면좌표에서 z축을 세우면 수많은 시각들이 존재하는 3차원의 입체적 공간이 생긴다. 지난 3개월간의 수습기간은 내가 평면적 시각에서 3차원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지난 가을, 문화부 수습기자로 목벽가요제 취재를 나왔다. 화과 친구들은 관람석에서 무대를 향해 환호하고 있었지만 나의 시선은 단지 화려한 무대에만 고정

되지 않았다.
“이번 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사장의 열기가 뜨거워질수록 관객석과 무대 뒤를 분주히 오가며 더욱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문화부와 대학부 기사들을 취재하면서 이전에는 지나치던 대학사회와 문화현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고, 최대한 다양한 시각에서 이를 보려는 노력을 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자신만의 길을 걷는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에 귀 기울이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결코 쉽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었다. 까다로운 아이템 회의와 사람 대하는 것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게 만드는 청탁과 취재, 일각을 다투는 기사 마감의 압박으로 눈물 흘린 적도

여러 번이다.
또한 만만치 않은 학과 공부와의 병행은 하루 24시간이 모자라 허덕이게 만들었다. 이렇듯 신문사 외의 다른 것들에 대한 소홀함은 점차 내게 부담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내가 쓴 기사를 읽을 독자들을 생각할 때면 힘이 났고, 한편으로 내가 그린 일러스트가 기사를 더욱 빛낼 때면 뿌듯함을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는 법을 배운 점은 내가 기자이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데 어느덧 3개월의 수습기간을 마친다. 이제에는 보다 능동적인 기자의 모습으로 땀땀하고 당당하게 독자들 앞에 설 것이다. 유연한 사고와 넓은 시각으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하는 나의 기사는 분명 독자들과 진실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주현 기자
niitake@dongguk.edu

기자가 된 후, 나는 기사판 게시물을 꼼꼼히 읽고 주변의 일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보곤 한다. 전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학교 행사였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앞서서 행사 전반을 취재하고, 어떻게 하면 이를 더욱 생생하고 진실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
고등학교 때부터 기사를 동경하던 나는 2학기 개강 후 용기를 내 신문사에 지원했다. 그러나 기자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막상 현실로 다가오자 그리 만만치 않았다. 취재원들과 만날 때마다 움츠러들기 일쑤였고, 새벽까지 이어지는 기사마감과 조판작업은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다. “왜 굳이 힘든 일을 자처 하나?”는 주변의 걱정 어린 목소리도 많았다. 그럴 때면 내가 선택한 길이 현명인지에 대한 고민이 수없이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학생기자이기에 얻을 수 있는 값진 경험과 기회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욕심만큼은 버릴 수 없었다.
현장의 치열함을 느낄 수 있었던 총학생회 선거 개표 취재는 공정하고 객관적

이어야 하는 기자의 위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또한 비전선포식 취재를 통해 누구보다 앞서서 행사를 접하고 이를 전달하는 기자의 매력을 마음껏 느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취재 연습들은 더 이상 출입처와 취재원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고, 오히려 새로운 사람과 사건을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게 했다.
이렇듯 지난 3개월간의 대학부 수습기자 활동은 대학사회의 전반적 현상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눈을 갖게 해주었다. 취재와 학업으로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곤 했지만 일을 마치고 나오면서 보람을 느끼는 날들이 늘어갔다. 이러한 시간들은 내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무의미하게 반복되던 대학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



동력이 됐다.
이제 지금까지 배워 온 것들을 바탕으로 정기자가 되려고 한다. 정기자라는 위치는 기사에 대한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요구할 것이다. 나는 더욱 진실된 기사로 독자들에게 감동과 신뢰를 주는 기자가 되고 싶다. 이를 위한 나의 도전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강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메아리

늦지 않은 골든골

▲아시아에서 최초로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박지성 선수가 25경기만에 첫 골을 터뜨렸다. 박 선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신형엔진', '산소탱크'라 불리며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다. 한때 박 선수는 도음 4개만을 올렸을 뿐 득점이 없어 팬들의 애를 태웠지만 지난 경기에서의 골 폭발로 그 부담을 덜었다.
▲작년 12월 23일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에 관한 황우석 교수팀의 논문이 고의적인 데이터 조작으로 판명되면서 황 교수 논문과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는 '사기극'으로 밝혀졌다.

황 교수 스스로도 논문 철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사실상 조작을 시인한 셈이다. 이번 사건은 학계 차원을 넘어선다.
난치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희망에 들떠있던 환자와 황 교수 같은 과학자가 된다는 꿈을 가진 청소년 그리고 추락한 국제 신뢰도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막막하다. 그를 믿었던 팬들도 '설마' 하며 어리둥절할 뿐이다.
▲세계적인 과학자 등장에 놀랐던 우리나라로서 그의 물력은 충격과 안타까움을 더해 준다. 앞으로 신뢰도 추락과 연구팀 와해 등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젓가락 기술(?)'을 가지고 있다.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조작된 것임을 밝혀낸 '과학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과학자들도 있다. 과정에 문제는 있었지만 결국 우리사회에 과학을 사랑하고 성실히 연구하는 이들이 있기에 아직 낙담하진 이르다.
▲박 선수는 평범하다. 운동선수를 직업으로 하기에 '부적합한 신체(?)'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다. 이런 그가 현재는 호칭을 얻게 된

이유가 있다. 남들보다 뛰어난 지구력이나 돌파력 같은 외적인 요인이 아니다. 그 누구보다 뛰어난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과 '성실'이라는 무기로 중무장한 최고의 선수이기 때문이다.
과학이든 스포츠든 모든 분야에 성공은 그 분야에 대한 '사랑'이 생명이다. 즉 진실도 선행되어야 한다. 거짓과 치부를 인정하고 새롭게 과학계에서도 박 선수와 같이 '골 폭발'을 터뜨리길 기대해 본다.
황우석 편집장
hjs0228@dongguk.edu

사립학교법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개방형 이사제 도입 · 대학평의회 구성이 핵심

사립학교법 개정항목	내 용
개방형 이사제 도입	이사정수의 4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회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한다.
대학평의회 구성 의무화	대학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학평의회 구성이 기존에 대학 자율에 맡겨졌던 것과 달리 의무화된다. 대학평의회는 기능,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게 된다.
회계의 구분	회계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회에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정당, 종교단체, 사학재단, 시민단체가 입장에 큰 차이를 보이며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포함해 △대학평의회 설치 의무화 △이사회 임원관련 제도 강화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일부 사학재단은 "개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자율성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서울, 대구, 광주, 등에 이어 전북지역 사립중·고교가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발해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기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립대학들은 좀 더 지켜

보자는 분위기가. 종교계에서는 가톨릭법인 연합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사립학교법 개정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한 우리학교 재단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이 공동대표 의장으로 있는 7대 종교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대통령에게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촉구 탄원서를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무엇보다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과 대학평의회 구성 의무화 등 대학이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학교 정관을 살펴보면, 13명의 이사 중 9명은 대한

불교조계종 재적승려로 임명하고 나머지는 총장을 포함해 이교도가 아닌 교육계 및 각계의 덕망 높은 인사로 선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적승려 외의 나머지 이사도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 종립학교위원회가 추천한 인사가 선임돼왔다. 이로 인해 그동안 이사선임의 공정성이나 전문성이 학내 외 구성원들에게 비판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평의회에서 4분의 1 이상의 이사를 추천하게 될 경우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원승인 취소 사유도 구체적으로 적시해 이사의 의무

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개별 이사마다 이에 책임을 지도록 했다. 따라서 스님들의 파벌 싸움으로 인해서 이사회 업무에 차질을 빚거나 이사회가 무기한 휴회되는 일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학평의회의 기능,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구체적인 관련 규정을 제정하게 될 사립학교법 대통령령에 관한 관심이 크다. 애초에 열린우리당이 "대학평의회는 교수회 대표, 학생회 대표, 직원회 대표, 동문 및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고 의견을 밝혔던 것과는 달리 교육부는 대학평의회에 법인 직원을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위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한다면 이를 추천하는 대학평의회가 법인 직원을 임원으로 임명해 제도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사설

동국 건학 100년의 새아침

2006년 새해 첫날이 밝았다. 오늘은 동국대학교가 건학을 한 지 꼭 100년이 되는 첫날이다. 1906년, 우리 불교계의 선각들께서 종로구 창신동 소재 원흥사에 근대식 불교교육기관인 명진학교(明進學校)를 세운 이래 어언 한 세기를 지나온 것이다.

이 기념비적 연대기 앞에서, 우리는 오늘 아침 마음의 큰결을 올린다. 어버이에게도, 연인에게도,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모두 한꺼번에 절을 올린다. 100년 역사와 전통이 어버이라면, 오늘 우리의 용맹과 정진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연인이며, 꿈과 바람은 우리들 미래 100년의 소중한 후손들이다. 이 모두를 위하여, 오늘 아침은 뜻을 한 데 모아 큰결을 올릴 법하다. 기억하고 자랑하자. 마음에 새겨 기둥을 세운 뒤에 등불로 걸어달아두자. 우리 동국대학교는 이 땅의 자랑스러운 민족사학으로서 어느 한 순간도 멈춤이 없이 교학상장(敎學相長)의 꿈을 실천해왔다. 가르치고 배우며 이끌어주고 밀어주면서 키워낸 인재가 20만이다.

민족의 위대한 스승 만해 한용운 스님으로부터 인류 최초로 산악그랜드슬램을 이룩한 박영석 대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국의 정신은 백척간두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으며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하고 또 도전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오늘, 건학 100년의 새아침을 맞았다.

이제 우리는 '상장(相長)'과 '불굴'과 '도전'을 다시금 생각한다. 이는 곧 국권침탈의 그 통탄의 시절 선각들께서 한 손 두 손 모아 민족의 학교를 세운 거룩한 뜻을 되새기는 일이며, 앞으로의 희망찬 100년을 위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는 일이기도 하다.

새로운 세기, 새로운 아침이다. 동쪽의 새 태양은 오늘 따라 크고 밝다. 우리 모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동국대학교에 큰결을 올리자. 그는 시방삼세 시시처처에 있으며 '우리 고향중의 고향'으로 모두를 크게 감싸고 계신다. 공부와 수양이 모자라면 이제라도 여기에 무릎 꿇고, 자비와 공덕이 부족하면 이 크신 어른 앞에서 마음껏 뉘우치자.

그러면 이 분은 '멀리, 드높이 날아오르는 기상으로 세계와 겨루는 동국인들이 되라'는 덕담을 내리시려니, 우리는 그 말씀의 세뭇돈으로 스스로를 기르는데 쉬임이 없도록 하자. 이를 일러 '역경(易經)'에서는 자강불식(自強不息)이라 하니, 이는 곧 대학인이 '매일 매일 새로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모양(日新 又日新)'이 흐르는 시냇물이 멈추지 않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동국 비전의 슬로건은 이를 일러 Be the Newest 라고 부르는 것이니 오늘 아침부터 머나먼 미래의 영원까지 우리의 소명은 오직 경쟁과 혁신이다.

경쟁과 혁신은 지난 100년을 버리고 단절하는 게 아니라 오래고 오래도록 면면히 이어가는 것이다. 라오쯔(老子) 철학에서는 이를 면면약존(綿綿若存)이라 하며, '계사'에서는 "창조하고 경쟁하는 것이야말로 만물의 본래적 성향이자 우주의 생동하는 변화인 역이다(生生之謂易)"라고 한다. 또한 우리를 부처님 말씀에 따르자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탐진치(貪瞋癡) 삼독(三毒)의 장애로부터 벗어나 매순간 거듭 태어나려는 결연한 의지가 바로 경쟁이자 혁신인 것이다. 변화의 놀라움이란 경쟁과 혁신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지 않은가. 그러니 건학 100년 새아침을 맞는 동국인들이여, 오늘 아침부터는 매순간이 새롭고 경이롭도록 하자.

영어교육 타대학에 비해 부실

강좌이수학점 증대 등 개선 필요

2005년 전기 졸업예정자 중 아직까지 영어pass 졸업요건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이 500여 명에 달한다. 국제교육원은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졸업인증 영어pass제 대체 강좌'를 실시했다. 15일간 하루 세 시간 동안 강의를 받고 패스하면 영어pass 졸업요건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이는 영어pass 졸업요건 제도가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더구나 토익점수가 영어실력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모든 학생들에게 토익점수 취득이 강제된다는 점에서 영어pass 졸업요건제도는 비판받고 있다. 학생들의 실질적인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의대는 재학 중 필수로 '실용외국어'를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1~2학년 과정 4학기 동안 동일한 외국어로 1부터 4까지의 과목을 학기 당 2학점 씩 총 8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다. 과목은 영어뿐만 아니라 불어 등 총 7개 과목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어학 관련학과 학생의 경우 본인의 제1전공 언어와 같은 종류의 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총 4학점 이수를 완료하는 우리학교 교양필수 영어강좌에 비해 심화된 영어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기본 이수교육과정 외에도, 각 대학들은 학생들의 실질적인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화여대의 경우 2001년 국내 최초로 영어클리닉을 설립해 지금까지도 학생들의 이용이 활발하다. 이곳에서는 많은 신청인원을

감당하기 위해 이용수와 예약취소·결석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영어클리닉은 영작문 중심으로 운영되고 상담원이 학생이 작성한 에세이를 첨삭해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중앙대, 연세대, 한국외대 등에는 캠퍼스 내에 '어학 라운지'가 설치돼 있다. 이는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서 외국어를 보다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어학 라운지'에서는 어학공부와 함께 외국인 교수, 교환학생들과 함께 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이 한 명씩 짝이 되어 함께 생활해 언어뿐만 아니라 서로의 문화도 배우는 '버디 프로그램'을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우리 학교도 이번 2006년에 교양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영어관련 강좌를 개설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영어능력 레벨테스트를 거쳐 현재 실용영어 1, 2와 영어회화 1, 2로 시행되고 있는 교양필수 영어강좌를 1학기에 수준별로, 2학기에는 계열별 수업으로 실시하게 된다. 또한 올해 영어클리닉 센터도 설립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영어관련 강좌의 이수학점을 증대하고 강좌 종류도 세분화·전문화하는 등 영어관련 강좌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직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영어클리닉 센터도 타 대학들을 벤치마킹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주현 기자
nitake@dongguk.edu



"사랑 한 큰술" ... 지난 달 21일 참사랑봉사단은 장애인 복지관 '함림원' 장애우 100명을 학교에 초대했다. 이날 장애우들은 참사랑봉사단 학생들과 점심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지희 기자 iamjh713@dongguk.edu

최고위수료자들 학교에 발전기금 기부

불교경영자·부동산 최고위 과정 수료생들 4천만원

불교경영자 최고위과정 수료생들과 부동산 최고위과정 수료생들이 발전기금 기부를 통해 학교발전에 한마음을 모았다.

불교대학원(원장=조용길·불교학) 제4기 불교경영자 최고위과정을 마친 수료자 35명은 지난 12월 21일 만해관 모의법정실에서

진행된 수료식에서 발전기금으로 3천만원을 기부했다.

또한 행정대학원 제11기 부동산 최고위과정을 마친 수료자 78명도 지난 12월 22일 예술극장에서 진행된 수료식에서 발전기금으로 1천만원을 기부했다.

BK21불교사상연구단,

하버드대와 공동세미나 개최

우리학교 BK21 불교사상연구단(단장=조용길·불교학)과 미국 하버드대학 세계종교연구센터의 공동세미나가 지난 12월 9일부터 이틀간 하버드 대학교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불교생태학과 환경연구'를 주제로, 논문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조용길 단장 등 8명의 교수와 박사과정 대학원생 5명이 참여했고, 하버드 대학에서는 Robert Gimello 교수 등 8명의 교수와 다수의 전문가 및 대학원생 등이 참여했다. 세미나에 참여한 한 대학원생은 "책에서만 보던 학계의 권위자들과 실제로 만나 토론을 하고

즐거워 답소를 나누는 등 흔치 않은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현대 물질문명의 위기적 상황에 대한 불교생태학적 대안을 찾아보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생태학적인 위기의식을 촉구하고 불교생태학의 대안 문명적 성과를 인접 학문들과의 교류 속에서 확대·심화시키기 위하여 건축공학과와 산림자원학과의 교수들이 동참했으며, 현대 응용학문의 집결지인 하버드대학에서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

영상대학원생 스탠포드대 객원연구원파견

3개월간 활동 ... 2월 교환발표회 개최

우리학교 영상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윤지원, 고수진, 조희영, 윤해정 양 등 4명이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컴퓨터 음악·음향 연구소로부터 객원연구원으로 초청돼 내일(2일) 출국한다.

학생들은 오는 1월 9일부터 3월 31일(겨울학기, Winter quarter)까지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현지 대학 박사과정생과 동일하게 수업과 연구에 참여하고 연구기자재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미국 스탠포드대학 컴퓨터 음악·음향 연구소(Center for Computer Research in Music and Acoustics at Stanford University, 이하

CCRMA)는 지난 1975년 FM 창시자인 John Chowning에 의해 세계 최초로 설립됐으며 현재 약 50여명의 전 세계 우수한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세계최고의 연구센터로서 IBM, HP, YAMAHA, SONY, Xerox 등 세계 유수 업체들과 연구협약을 맺고 있다.

이번에 파견되는 학생들은 스탠포드대학에서 2월 중순 경에 교환발표회를 개최하고 7월 경 우리학교에서 양 대학 기관 공동 여름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0월에는 우리학교에서 교환발표회를 갖고 두 기관의 Exchange Program 협약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칭찬합니다

우리 신문은 건학 100주년을 맞아 동국 화합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학내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칭찬합니다'를 기획 연재한다.

"선은 현실 속 행복을 깨닫는 것"

19 서재영 선학과 외래교수



'슬로우 라이프'와 '슬로우 푸드(패스트푸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젓갈, 김치, 장갈이 조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음식을 일컫는다)'가 각광 받는 요즘, 느리게 사는 삶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명상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현실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인기가 높다. 동국인들은 이러한 명상을 수업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열아홉 번째 '칭찬합니다' 주인공인 서재영 선학과 외래교수님을 만나 그의 강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이 실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 해요" 그는 항상 끈기를 잡는 얘기가 아닌 현실성 있는 이야기로 강의하기 위해 노력한다. '선'에 관련된 교리를 전달하기보다는 수업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좌선에 할애하고, 현실적인 예를 들어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산 소를 마시고, 대화를 할 수 있고, 차를 마시는 것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는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많은 학생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꿈꾸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서 교수는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으며 그러한 욕망은 다다를 수 없는 신기루일 뿐이라고 말한다. 2006년에는 새로운 것을 '소유'하고자 애쓰기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행복들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보는 것은 어떨까.

euemi@dongguk.edu

보리소

반야바라밀다와 신지식인 디제라티(digerati)

신지식인의 한 가운데에 '디제라티(digerati)'가 있다. 디제라티는 디지털(digital)과 리터라티(literati : 지식인)를 합성해 만든 신조어로서 사이버 버전의 '지식인'인 셈이다.

신지식인 디제라티는 직업, 학력, 성별, 연령과 관계없다. 박사가 아니어도 박사들을 가르치고 대학을 안나왔어도 대학생을 가르친다. 신지식인은 자기가 종사하는 일에 관해서 가장 최신의 정보를 구축하여 미래를 선도해 나간다.

과거에는 소수의 엘리트 권력가나 지식인에 의해 지식과 정보가 독점되었다. 이제는 정보와 지식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열린 지식을 재구성하여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식인이다. 그들은 잠시도 정지된 상태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지식을 재창조한다. 그들이 바로 '신지식인(新知識人)'이다.

'반야바라밀다'는 지혜의 완성을 뜻하는 불교 슬어이다. 피안에 이르는 지혜, 피안에 도달하여 발휘하는 지혜다. '바라밀다'는 끊임 없이 혁신되어 멈춤 없는 진행형을 의미한다. 피안에 이르렀다 하여 그 자리에 머물면 그 또한 집착이다. 멈춰버린 지혜는 죽은 지혜이다. 완성된 지혜란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되는 생생과정적인 지혜이며, 묵은 것을 버리고 새것을 추구하며, 얻어진 새것마저 다시 버리기를 끊임 없이 반복하는 살아있는 지혜이다.

이제 새해 새날이 밝았다. 올유년 한 해 살아온 날들이 썩 맘에 들진 않더라도 미련 없이 떠나보내고 반야바라밀다로 업그레이드 하여 신지식인 디제라티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새해 설계를 해 볼 시간이다.

이 학 주
사범대학부속여고 교법사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편집인 겸 주간	윤재웅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부주간	김세곤	구독문의: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편집장	황주삼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68 팩스 (054)770-2067

100년동국, 서울캠퍼스가 중심이다!



스포츠플렉스

- 위치 : 대운동장과 수영장 부지
- 대운동장 부지
지하에 주차장과, 청계천 원수를 공급하는 남산 저수시설을 갖추고, 지상은 야외공연시설과 다양한 체육시설 건립
- 수영장 부지
실내 스포츠플렉스를 신축하여 실내수영장, 실내경기장, 헬스센터, 콘서트홀 조성

- 위치 : 현 필동 테니스장 부지
- 면적 : 지상 7층, 지하 2층 총 1만3천평 규모
- 사업내용 : 산학협력·공학관 7천평, 기숙사 1,200명 수용
- 공사계획 : 2006년 5월에 기공, 2008년 완공 계획 완공 후 원홍관, 과학관 등을 리노베이션



산학협력·공학관 / 기숙사

- 위치 : 필동병원 부지
- 면적 : 지상 15층, 연면적 1만평 규모
- 사업계획 : 영상대학원 등 영상미디어 관련 교육·연구시설 산학협력을 통한 수익시설·문화시설을 집중 배치



충무로 영상센터

앞으로 15년 후,
우리 캠퍼스는 4만평의 캠퍼스 울타리를 어르고,
지역과 협력하여 20만평 캠퍼스 타운이 조성된다.
우리학교는 캠퍼스 마스터플랜의 5대 비전을 가지고
양우 백년, 서울의 중심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열린 캠퍼스
세계의 지식과 문화가 만나는, 국제적 학문과 문화 교류 중심
개발업의 여유와 용맹정진의 치열함이 느껴지는, 탐구의 도량
지역산업체와 협력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Think Tank
남산 자연생태계와 연계한 도시생태계를 이끄는, 자연환경의 지도자



디지털 도서관

- 디지털도서관 신축
장충단공원의 플러스케이프장에는 서울시와 학교, 기업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개방되는 첨단 디지털 도서관 신축



혜화문 지하상가

- 혜화문 지하상가
현재의 도로용벽을 철거하고, 학교로 진입하는 지하차도를 만들어서 동국관과 혜화문 사이 지하에 건립할 주차장과 문화시설로 연결, 지상은 동대입구 지하철역에서 혜화문을 거쳐, 동국관 앞까지 보행자 전용으로 여유로운 통학 산책로 조성



학림관과 만해광장 주변

-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후문입구 제일병원 앞 일방차선이 왕복도로로 확장
- 후문방향의 차량진출이 가능하도록 지하차도와 지하주차장 건설
- 시설이 낙후된 학림관, 학생회관 등을 리노베이션 만해광장 지하를 개발하여, 특색 있는 공간을 창출

- 70% 매입 완료된 모자란 부지에는 국제교류센터를 구성
- 학술·문화관, 동국관, 혜화관은 1~2층씩 증축하고, 리노베이션
- 지역사회와 남산을 우리 캠퍼스와 연결하여, 캠퍼스 타운의 상징성과 효율성을 갖춘 멋진 서틀의 운행
- 동서방향 Open Corridor를 새로 구축하여, 보행동선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남산과 연결된 남북방향 3개 동선을 정비하면서, 경사지에는 실내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계획